



The 40th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 Diabetes Association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창·간·호
2008년 3월
www.diabete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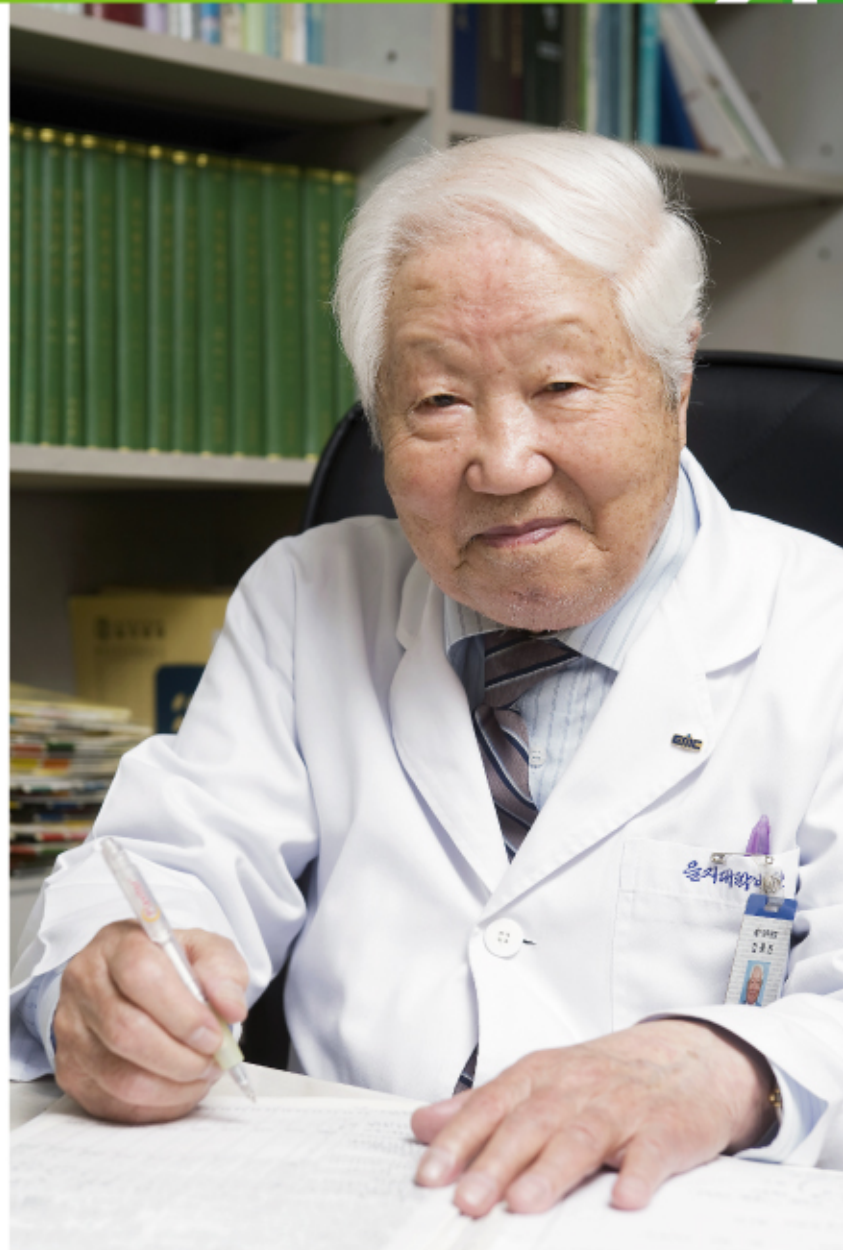
40주년 기념인터뷰 ① - 김응진 초대회장

당뇨병학회 산파 설원 김응진 선생

기념사업단에서는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학회 역사 발전을 주도해 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고자 "원로교수 인터뷰"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가 당뇨병학회 초대회장 김응진 교수(현 명예회장)다. 인터뷰는 3월 3일(월) 오전 11시 반 을지병원 당뇨센터 1번 방, 김응진 교수의 진료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진행은 최동섭 이사장이 맡았다.

"지금 나는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아무런 욕심도 사심도 없이 오직 당뇨병학계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단 한가지 염원을 가지고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당뇨병학회 「20년사」 김응진 선생 회고담 중에서)

그는 20년 전 소망 그대로 93세의 나이인 지금도 일선에서 당뇨병 치료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네 번, 하루에 50여 명씩 환자들을 돌본다. 인터뷰 대기 시간에도 끊임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고 그는 한결같이 인자하고 꼼꼼한 모습이었다. <2면으로 이어짐>



Contents

01 02

초대회장
김응진 교수
인터뷰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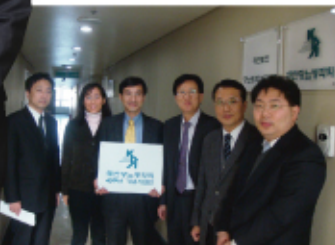
40주년기념사업단 단장
최동섭 이사장
인사/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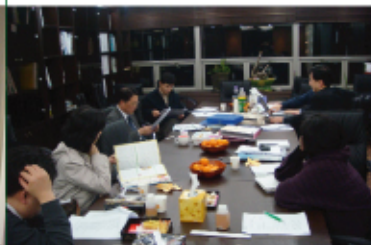
역사의 현장
창/립/총/회

기념사업단
현/판/식



05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06

*엠블럼
슬로건
설명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단 조직도

*40년사 자료수집 광고



당뇨병학회 산파 설원 김응진 선생



(1면에서 이어짐)

최동섭(이하 최) 1968년 10월 4일 창립하신 대한당뇨병학회가 이제 2천3백여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우리나라 가장 큰 학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응진(이하 김) 당뇨에 뜻있는 의사선생님들 덕분에 학회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많이 늘고 연간 행사도 내실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합니다.

최 선생님께서 원래는 소화기내과로 시작하셨지만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셨다가 많은 당뇨환자를 접하면서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 맞습니다. 미네소타대학 당뇨병 클리닉에서 갖가지 합병증을 일으킨 당뇨환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발생 빈도가 틀림없이 높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공을 당뇨병학으로 바꾸었지요.

그는 1960년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당뇨병색출검사를 시작했다. 서울 각 병원 내과 외래환자와 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당시는 중앙검사실제도가 없어 의사들이 직접 검사했다. 반세기전 한국에 '당뇨병학'이 태동하던 순간이었다.

김 : 서울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색출검사를 하러 많이 갔지요. 심지어 한반도 주위 섬들까지 다 다녔거든. 허허…….

최 : 기록을 보니 1956년 0.4%에서 1961년 0.75%로 높아진 걸 알 수 있네요. 그때는 소변검사와 혈당검사로 진단하셨나요.

김 : 그럼, 그랬죠. 그때는 젊을 때였으니까 열심히 했죠.

그랬다. 1961년에는 내과학회에서 주는 학술상을 받았고 「당뇨병의 식사요법」을 펴내는 등 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 뒤 해를 거듭할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의학계에서도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이에 그는 당뇨병학회 창립을 결심했다.

최 : 1968년 학회를 처음 만드실 때 기억이 나십니까.

열 두 분의 발기인이 계셨는데요.

김 : 창립총회 때 3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애매합니다. 허허, 너무 오래됐네요. 학회 설립하고나서 세계당뇨병학회(IDF)에도 가입했습니다.

최 : IDF 다녀오신 것을 사진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학회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지요.

김 : 세계당뇨병학회에 활발히 참가해 연제도 발표하는 등 국제학회와 교류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그의 삶 자체가 당뇨병학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적인 삶이 당뇨병학회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는 학회와 후학들을 위해 퇴직금과 저서의 인세를 모아 설원연구비를 제정하기도 했다.

김 : 연구비 없이 당뇨환자를 찾아 헤매던 시절을 생각하고 후학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설원연구비를 만들었죠. 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 : 후학들에게 특별히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 : 특히 예방에 신경 써서 당뇨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잘 치료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최 : 꼭 명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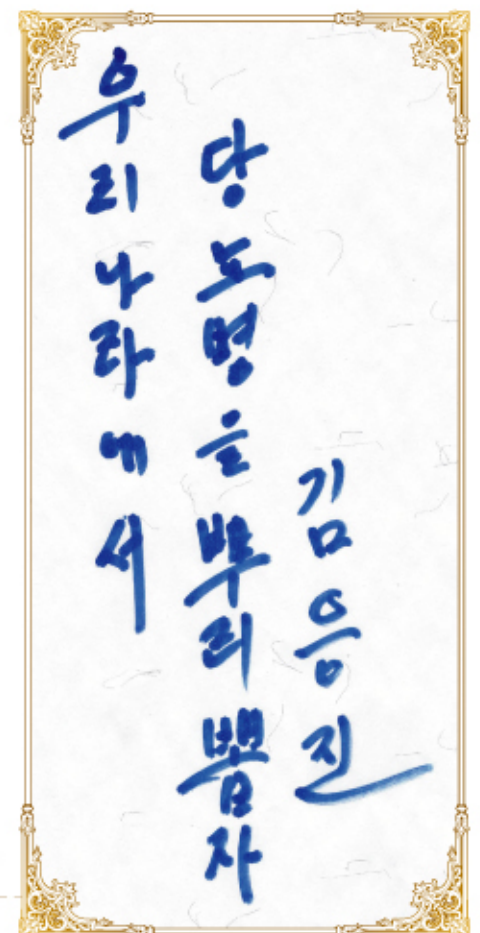
40년 전 대한당뇨병학회를 만든 초대회장을 지금 인터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학회의 축복이다. 그의 장수비결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운동'이다. 지금도 테니스를 치고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린다. 환자들에게 처방만 하지 않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3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과 함께 의사의 길을 걸은 지 70년이 훌쩍 넘었다. 1981년 서울의대를 퇴임한 이후 을지병원에서 근무한 것만 28년째다. 그간 10만명이 넘는 환자가 그의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40주년을 기념하여 자필로 기념문구를 부탁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을 뿌리뽑자"라고 썼다.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글이다.

김응진 선생 평생 소원은 당뇨병학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따내는 우리나라 의학도의 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당뇨병학회 후학들의 임무이다.

김응진 초대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자필 문구



여러분의 참여로 40주년 행사가 풍성해 집니다

학회 회원께 인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10월 4일로 우리 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비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알리고자 40주년 기념 신문을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 학회 원로회원과의 좌담회에서 토의된 의견을 받들어 알차고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월 12일 제 49차 정기이사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영설 회장과 40주년 기념사업단의 준비위원장인 유형준 교수와 함께 학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직원도 임시로 채용하였습니다.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인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편찬을 위해 이를 대행할 기획출판사도 정기이사회에서 다수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니기획으로 확정하여 40년간의 학회 발자취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50주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4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을 학회 회원으로부터 공모한 결과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를 선정하였고, 40주년을 나타내는 엠블럼도 학회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 2월 19일 열린 정기평의원회에서 녹색과 국문으로 학회를 표시하는 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큰 행사인 4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200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해외 연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한당뇨병학회 원로교수와의 인터뷰를 추진하여 지난 40년간의 학회의 발자취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동시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로 선생님과의 대담 내용은 학회의 사료로 필요시 신문과 방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회 기간 중에 학회 역사 및 자료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춘계학술대회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수익금을 당뇨병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둘째 주 당뇨병 주간에 개최하는 행사를 4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홍보위원회와 협조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사가 순조롭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준비가 진행되면서 당뇨병학회 역사자료 수집 등 필요한 협조 사항과 참여할 내용은 40주년 기념신문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계획된 40주년 기념행사가 학회 임원의 행사가 아니며 학회의 주인인 회원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4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우리 학회가 기념행사를 통해서 학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다가 올 50주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2008년이 될 수 있기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바라면서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에 부쳐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최 동 섭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40주년 기념사업단 단장

40년 전 우리가 태어나던 그 순간!



당시의 창립취지문 및 초대 임원명단
(자료제공 : 유형준 교수)

1968년 10월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당. 30여명의 인사들이 모였다. 한국 의학사에 실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대한당뇨병학회의 첫걸음이 내디뎠던 순간이었다.

강영준, 강형룡, 고광욱, 고운희, 김명환, 김응진, 도상희, 이상용, 민병석, 민헌기, 박리갑, 홍순국

대한당뇨병학회 12명의 발기인 명단이다.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수는 늘고 늘어 2천여 명이 당뇨병학회 회원으로 있다.

이 발기인들은 이곳 저곳 장소를 옮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은 회합을 가지면서, 학회 명칭을 짓고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동참할 인사들을 선정하고 만나며 대한당뇨병학회를 탄생시켰다. 다음은 창립취지문이다.

당뇨병은 현대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그 영역은 의학 전문분야에 걸쳐 있다. 근자에 한국에서도 당뇨병 발생빈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또한 한국의 당뇨병이 우리의 유전적소인, 생활양식 및 사회상에 따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연구 관리 및 계몽을 추진하고 국제학회와의 유대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의학도 십 수명이 모여 한국당뇨병학회(가칭)를 창립하고자 하오니 의학계의 많은 인사의 협력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초대회장에 김응진, 부회장에 도상희, 이상용을 선임했다. 뜻을 같이하며 참석했던 초대 대한당뇨병학회 회원들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국내의 당뇨병 분야를 짊어주고 꽃피워야 한다는 일념에서 과감히 전공을 바꾸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바로 이 개척자 정신이 대한당뇨병학회의 창립 정신이었다.

〈참조 : 대한당뇨병학회 20년사〉

40주년 기념사업단 현판식 ●●●

'40년 역사를 우뚝 세울 힘찬 발걸음 내딛다'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현판식이 2월 12일(화) 학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기념사업단 단장 최동섭 이사장과 김영설 회장을 비롯하여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회 유형준 위원장과 실무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현판식을 거행했다. 올 한해 학회 40년 역사의 의미를 널리 알려내게 될 기념사업단의 힘찬 첫 발걸음이었다.



좌로부터 최동섭 이사장, 김영설 회장, 유형준 위원장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회

"1년 동안 40년의 역사 충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기념사업단은 2007년 11월 9일(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월까지 4차례 걸친 회의를 열었다. 기념사업단은 회의를 통해 사업단 설립 의의를 확인하고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원을 확정 지었다. 원로교수 좌담회, 현판식, 슬로건, 엠블렘 등을 기획, 진행했고 「40년사」 편찬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월 1일 학회사무실에서 열린 기념사업단 4차 회의 모습. 「40년사」 편찬 출판사 선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세부 진행내용이다.

원로교수 좌담회

1월 8일(화) 오후 6시 신라호텔 팔선 회의실에서 학회 원로회원과 함께 하는 40주년 기념사업 계획 보고 좌담회가 있었다.

민헌기, 최영길, 이태희, 허갑범, 신순현, 김영건, 이홍규 원로회원과 최동섭 이사장, 유형준 위원장, 고경수 간사, 학회 서영애 실장, 유지인 과장이 참석했다.

원로회원들은 20주년 이후 사료로 모이지 않은 학회의 업적과 자료를 엮어 매듭짓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했다. 단, 40주년 행사가 외형상 너무 크게 진행될 경우 반세기의 의미를 지닌 50주년 행사 준비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선에서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오래된 당료교육 책자 등 학회의 귀중한 자료들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왔다.

40주년 기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판식은 학회 내 40주년 기념사업단 발족을 기념하는 내부 행사이므로 실무진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창립기념행사는 추계학술대회 기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슬로건 공모 및 선정

1월 18일~1월 31일 슬로건 공모가 진행되었다. 학회 홈페이지 공지, 메일 2회 발송, 문자메시지 2회 발송을 통해 슬로건 공모를 회원들에게 알렸고, 2월 1일 기념사업단 4차 회의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했다.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를 공모한 이창범 회원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2등에는 안지현, 황선희/박정은 회원의 공모작이 선정됐다.

엠블렘 제작

로고제작 전문회사인 현컴에 40주년 기념 엠블렘을 1월 30일(수) 제작 의뢰했다.

2월 4일(월) 1차 시안이 나와 40주년 기념사업단 위원들에게 메일로 의견을 받았고, 2월 12일(화) 2차 시안이 나와 기념사업단 위원에게 의견을 묻는 동시에 같은 날 있는 정기이사회에서 투표를 했다. 이어 2월 19일(화) 평의회에서 40주년 기념엠블렘을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엠블렘으로 명함, 봉투, 편지지, 팩스용지 등을 제작했다.

(엠블렘 설명 6면 참조)



1월 29일 학회사무실에서 있었던 「40년사」 1차 회의 모습. 「40년사」는 기념사업단의 핵심주력 사업이다.

40년사

「40년사」는 사료를 충실히 모아 담는데 초점을 맞춰 내실을 기하되 화려하지 않게 편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효과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전체회원에게 자료수집 협조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또한 각 병원별로 자료수집 지원팀을 결성했다. 지원팀은 각 병원 원로회원이 소장한 학회관련 자료나 병원 차원의 자료를 책임지고 수집하고 원로회원의 회고담을 기록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마감은 3월 31일(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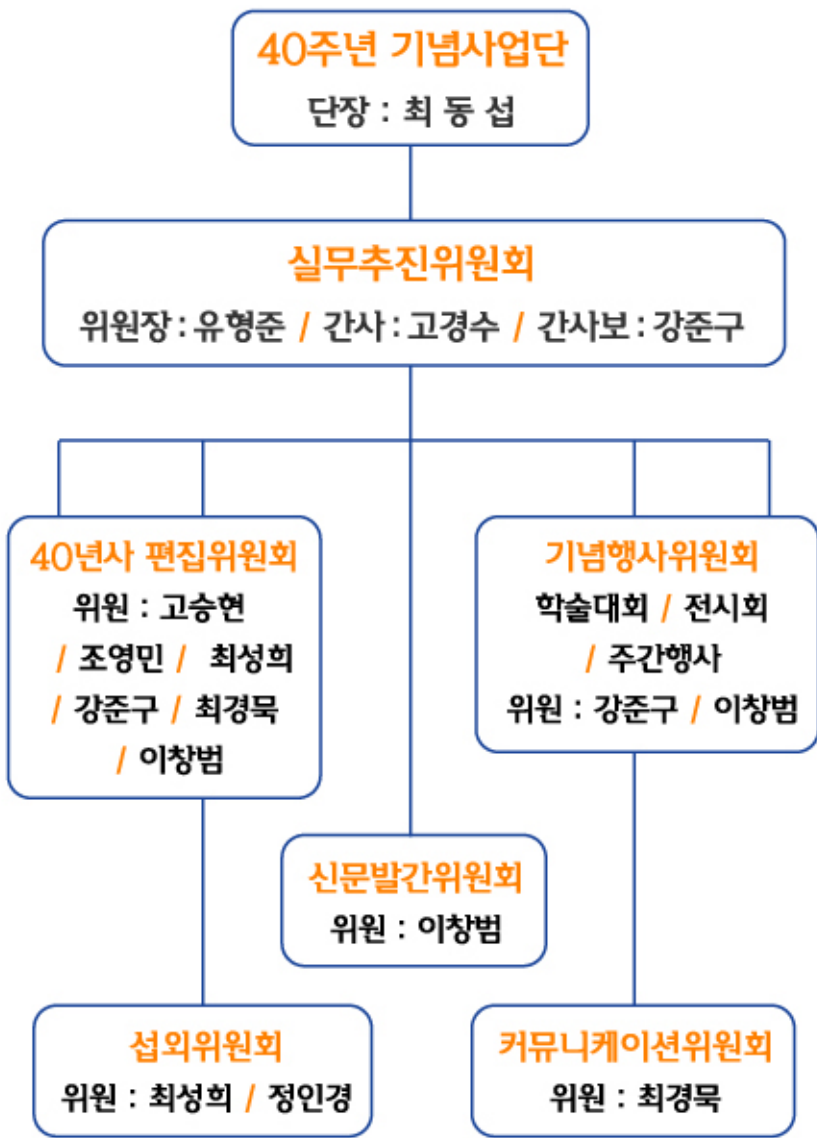
2월 12일(화) 정기이사회에서 「40년사」 편찬 출판사로 다니기획이 선정되었다. 다니기획은 사사(社史) 편찬 전문 출판사로, 2005년과 2006년에 우수사사 대상을 수상한 업체이다.

40주년 기념 원로회원 인터뷰

3~4월 두 달간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웅진 학회 초대회장을 필두로 18대 이홍규 회장까지 기념사업단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는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겸해 진행되며 학회의 사료로 귀중히 간직될 것이다.

기념우표 발행

기념사업단은 4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기념우표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제작부수, 판매형태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먼지 쌓인 앨범 한번 들춰 볼까요

불혹의 나이입니다. 당뇨병 연구와 치료에 온 힘을 쏟아온 40년의 시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당뇨병학회가 아프게 새겨온 마흔 개의 나이에 하나하나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땀과 숨결이 묻어있는 학회 역사의 흔적,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책상서랍 속 깊숙이 잠자고 있는 수첩을, 낡은 앨범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모든 것이 40년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학회 40년사 만들기,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엠블렘, 슬로건 설명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

엠블렘 설명

40주년 기념 엠블렘은 학회 로고와 동일한 녹색으로, 의료를 나타내는 경건, 진실, 박애와 더불어 생명, 희망, 성장, 단합,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어우러져 40을 나타내는 엠블렘의 형상은 40년 동안 당뇨병 치료와 연구에 회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온 역사와, 앞으로 당뇨병학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세계로 더 멀리 뻗어 나가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슬로건 설명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Together for 40 years, To our health

지난 40년간 대한당뇨병학회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여 당뇨병 연구와 치료를 위해 많은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의 소망인 건강한 미래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와 같은 슬로건으로 표현했습니다.